

# 13경기 '선발 무승' KIA ... '에이스' 브룩스가 끝내야

## T 타이거즈 전망대

■KBO중간순위 (19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13	8	0	5	0
1	LG	13	8	0	5	0
3	삼성	14	8	0	6	0.5
4	두산	13	7	0	6	1.0
4	KT	13	7	0	6	1.0
6	SSG	13	7	0	6	1.0
7	KIA	13	6	0	7	2.0
8	롯데	13	5	0	8	3.0
8	한화	13	5	0	8	3.0
10	키움	14	5	0	9	3.5

잠실서 LG 상대 연패 탈출 나서  
주말엔 안방서 삼성과 대결  
브룩스 이번 주 두차례 선발 출격  
13경기 홈런 1 ... 터커 역할 중요

'에이스' 브룩스가 마운드 정상화의 키를 쥐었다.  
연승 뒤 연패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20일 잠실을 찾아 LG를 상대로 연패 탈출에 나선다. 주말에는 안방으로 복귀해 삼성을 상대한다.  
브룩스가 20일 정찬현과 선발 맞대결을 벌인 뒤 25일 삼성전에도 출격한다. 고민 많은 마운드의 시작과 끝을 브룩스가 책임지게 되면서 KIA는 마운드 정상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두산과의 개막전에서 1-4패를 기록했던 KIA는 키움전 싹쓸이 3연승과 함께 순위 싸움에 시동을 거는 것 같았다. 하지만 NC와의 홈 개막시리즈에서 모두 패를 기록한 KIA는 롯데와의 첫 만남에서는 영봉패를 기록하는 등 4연패에 빠졌다.  
위기의 순간 최원준의 발을 앞세워 시즌 첫 끝내기 승을 장식한 KIA는 롯데전 워닝시리즈에 이어 SSG와의 첫 대결에서도 9회 4점을 쓸어담으며 11-6승을 장식, 3연승에 성공했다.  
하지만 SSG원정 결과는 2연패, 루징 시리즈였다.  
17일 시즌 4번째 연장전에 나서 '연장불패'가 깨졌고, 18일 경기에서는 9회 2사 만루까지 끌고 갔지만 2-4로 경기가 끝났다.  
'예측불허'의 전력으로 연승과 연패를 반복하고



브룩스

있는 KIA의 문제는 역시 마운드다.  
들쭉날쭉한 선발진 탓에 KIA는 어려운 경기를 이어가고 있다. 선발의 이닝은 짧고, 경기 시간은 길다.  
올 시즌 13경기에서 기록된 KIA의 퀄리티 스타트는 단 세 번. 브룩스가 2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만들었고, 맹맨은 지난 17일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을 기록하면서 시즌 첫 퀄리티 스타트에 성공했다.  
5회도 넘기지 못하고 선발이 일찍 물러난 경우는 무려 7차례에 이른다.  
기싸움에서 밀린 KIA는 뒷심싸움에서 힘을 받

휘하며 승을 챙겨왔지만, 힘겨운 경기들이 이어지면서 공·수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다.  
브룩스가 전면에서 나서 고인 마운드의 실태를 풀게 된다.  
기대했던 이민우와 임기영의 부진으로 선발 두 자리를 '임시'로 가동해야 하지만 브룩스가 두 경기를 책임지면서 그나마 마운드 운용에 여유가 생겼다.  
브룩스가 전면에서 서는 마운드, 타석에서는 터커의 역할이 중요하다.  
KIA는 올 시즌 13경기를 치르면서 단 하나의 홈

런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NC가 22개의 공을 담당 밖으로 넘기면서 팀홈런 1위, KIA는 4월 6일 키움전에서 나온 최형우의 홈런이 처음이자 마지막 홈런이다.  
지난 시즌 32개의 홈런을 기록하면서 중심을 잡아줬던 터커의 부진이 결정적이다.  
홈런이 아니라 안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13경기를 치르면서 62타석에 들어선 터커는 10개의 안타로 타율 0.175에 그치고 있다. 득점권 타율도 0.125에 불과하다.  
1루수로 변신해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부침을

겪으면서 고전하고 있다.  
'효자 외국인 선수'로 활약했던 브룩스와 터커가 지난 시즌 보여줬던 견고한 모습을 되찾아야 KIA의 순위 싸움도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한편 지난주 타격 바닥을 찍은 최형우가 새로운 한 주 2000안타에 도전한다. 2개의 안타만 더하면 통산 12번째 2000안타 주인공이 된다.  
타격감이 한풀 꺾인 김선빈은 1100안타를 목표로 영점을 조율한다. 9개의 안타를 추가하면 91번째 1100안타 기록을 작성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타이거즈 '레전드' 김응용 감독 챔피언 온다

24일 '타이거즈 레전드데이' 참석  
9차례 우승을 지휘한 타이거즈 '레전드' 김응용 감독이 24일 챔피언스 필드를 찾는다.  
KIA 타이거즈는 오는 24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타이거즈 레전드데이'를 개최한다.  
'타이거즈 왕조'의 주역들을 초청해 추억을 회상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레전드데이'의 첫 초청자는 김응용 전 감독이다.  
김응용 전 감독은 1983년부터 2000년까지 18년간 타이거즈 사령탑을 맡아 9차례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레전드 데이'를 기념해 선수단은 이날 올드 유

니폼(원정)을 입고 경기에 나선다. 경기에 앞서 김응용 전 감독과 기념 촬영을 하며 '명가 재건'의 의지도 다짐 계획이다.  
또 KIA 이화원 대표이사도 김응용 전 감독에게 감사패를, 조계현 단장은 기념 유니폼을 전달한다. 윌리엄스 감독과 나지완은 선수단을 대표해 꽃다발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응용 전 감독은 이날 시구자로 마운드도 밟는다.  
한편 KIA는 이날 입장하는 관중에게 올드유니폼 배지를 나눠줄 예정이다. 챔피언스 필드 로비에 1997년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전시해 포토존도 운영할 계획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986년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뒤 카피레이드에 나선 김응용 감독. <광주일보 자료사진>

## 화정초, 춘계 초등 야구대회 우승

화정초가 2021년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는 회장배(제17회 천안흥타령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예선 대회를 겸해 분광구장에서 열렸으며, 부전승을 거둔 화정초는 둘째 날 수장초를 14-11로 꺾었다.  
화정초는 이후 송정동초와의 경기에서 2-10으로 승리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다. 화정초는 이번 우승으로 5월 천안에서 열리는 회장배 전국 초등학교 야구대회 광주대표로 나선다. 준우승을 차지한 송정동초도 광주대표 자격을 얻었다.  
한편 제7회 2021년 춘계 중학교 야구대회 겸 제67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예선대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함평야구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리그전으로 진행된다.  
◇춘계 대회 시상내역  
▲우승: 화정초 ▲준우승: 송정동초 ▲최우수선수상: 박시언(화정초) ▲우수투수상: 복현우(화정초) ▲타격상: 김유원 (0.600/5타수 3안타-학강초) ▲최다루상: 한승현 (4개-화정초) ▲최다타점상: 박한울(4타점-송정



최근 끝난 춘계 초등학교 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화정초 학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동초) ▲감독상: 권형우(송정동초) ▲미기상: 우찬혁(송정동초) ▲감독상: 유종열(화정초) ▲지도상: 장경희(화정초 교장)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FC, 연패 끊으려 강원 원정 간다

K리그1 오늘 11라운드  
수문장 윤보상·신성 엄지성에 기대

광주FC가 연패 탈출을 목표로 강원 원정길에 올랐다.  
프로축구 광주는 20일 오후 7시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강원FC와 하나원큐 K리그1 2021 11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17일 포항과의 홈경기에서 여러 차례 땅을 쳤다.  
탄탄한 중원 압박과 수비로 상대를 봉쇄한 광주는 빠른 역습으로 포항의 골문을 열세 없이 두드렸다.  
경기 시작과 함께 나온 '막내' 엄지성의 슈팅을 시작으로 모두 15차례 슈팅을 날리면서 포항을 공략했다. 이 중 9개가 유효슈팅으로 기록될 정도로 매서운 공격이었지만 끝내 골문을 열지 못했다.  
포항 수문장 강현무의 선방쇼에 막힌 광주는 에타게 기다렸던 포항전 첫 승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이외함께 광주는 FA컵 경기까지 포함해 최근 3연패에 빠졌다.  
현재 3승 1무 6패(승점10)를 기록하고 있는 광주는 현재 9위로 잔류권에는 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하위 인천유나이티드(2승 1무 7패-승점7)와는 승점 3점 차에 불과하다.  
'에이스' 엄원상을 비롯해 이찬동, 김종우, 이한샘 등 주전 선수들의 부상 공백이 아쉽지만 다른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으로 광주를 움직이고 있다.  
골키퍼 윤보상이 매 경기 슈퍼세이버를 선보이면서 수비 중심에서 있고, 데뷔 3년 만에 '골맛'을 본 이희균은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유지해주고

있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알렉스와 함께 이한도도 안정된 수비로 상대를 묶고 있다.  
특히 '신성' 엄지성은 광주의 특급 무기가 됐다.  
날카롭고 빠른 돌파, 재치있는 움직임으로 상대를 속이며 시원시원하게 슈팅을 날리고 있다.  
새로 짝을 이룬 펠리페와 헤이스도 점점 호흡을 맞춰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펠리페에 상대의 경계 집중돼 있는 만큼 터질 듯 말 듯 터지지 않고 있는 헤이스의 골이 터져준다면 광주는 상대의 견제를 분산하면서 공격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김호영 감독도 지난 포항전이 끝난 뒤 "다양한 선수가 득점을 해주면 팀 승률도 올라가게 된다. (헤이스가) 조금 더 몸이 올라오면 골도 터지고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광주는 강원과 역대 전적에서 5승 8무 4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그러나 지난 시즌에는 1무 1패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올 시즌 첫 대결을 앞둔 강원원의 '병수불'이 매섭다.  
김병수 감독이 이끄는 강원은 패스 플레이와 조직력으로 상대를 위협하고 있다. 광주는 장정인 중원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강원을 공략해야 한다.  
연패에 빠진 광주와 함께 강원도 지난 라운드 수원FC와 원정에서 1-2 역전패를 당하며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마감, 기세가 꺾였다.  
광주가 초반부터 강하게 강원을 압박하면서 승리와 함께 분위기 반전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